

학교 숲 조성사업 큰 成果

포천시, 학교 및 어린이 보육시설 숲 조성

포천시는 녹지가 부족한 학교운동장 등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06년말까지 관내 9개 학교에 9억원을 투입하여 학교 숲 조성사업을 실시한 결과 학교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3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일동중학교, 송우중학교, 태봉초등학교 등 3개 학교를 선정하여 1개 학교에 1억원씩 총 3억원(도비50%, 시비50%)의 예산을 확보해 자연스런 숲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야외 숲과 비탈 숲을 활용한 소음방지, 정서함양, 시각차폐의 기능까지도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숲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고려해 학교별 녹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스터플랜(녹화계획)

협의를 통해 학교에 맞는 설계 및 조성에 역점을 두고, 학교별로 학교 숲 조성 협약서를 체결하여 학교 숲 조성에 따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조성 이외의 녹지공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동문·학생·학부모 등의 헌수·기념식수 등을 통한 녹화운동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 숲과 관련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숲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미래의 희망이 어린이들이 친환경적인 숲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군내, 내촌, 관인, 신평천, 선단어린이집 등 5개소에 어린이집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효응도가 높을 경우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학교 숲 조성사업이 완료된 갈월중학교.

테마요리교육 主婦들에게 인기

포천시, 농촌여성 평생교육활동으로 실시



포천시가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여성의 교육활동을 평생교육활동으로 정착시키고자 테마요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리엔탈소스등 식구를 비롯하여 중식, 일식, 한식, 양식, 동남아요리를 대표할 수 있는 요리 30종을 선정, 교육생들에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조리법을 지도하고 이와 더불어 테이블세팅, 소스제조, 요리상식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생들은 "평상시 접할 수 없었던 요리를 알게 되어서 매우 유익했고, 집에서 세계 각국의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 특히, 가족들에게 특별한 요리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좋았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여성들의 취미를 살리고 전문적인 신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청소년 위해 청사광장 開放

포천동, 3월10일부터 문화·놀이공간으로

포천동(동장 연제순)은 3월10일부터 문화·놀이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읍지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청사광장을 개방했다.

청사광장 개방 첫날인 이날 광장을 찾은 청소년들은 율놀이대회,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즐겼으며 음료수 및 떡볶이 등 간식을 무료 제공받았다.

특히, 동에서는 도우미 2명(청소년지도위원 1명, 주민자치위원 1명)을 배치하여 이용불편 사항을 접수받아 청소년들을 포함한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이며, 앞으로는 분기별 합합춤·간이연주 등 이벤트를 실시하여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꾸밀 예정이다.



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생식물 남청산의 어머니티' 發刊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금동리, 산정리, 덕둔리 일대는 일명 남청산이라 불리우는 곳으로 포천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남청산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자원을 조사하여 보존하고 자원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포천시 자생식물 남청산의 어머니티' 책자를 발간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⑧ 알락오리 [gadwall]

북상하다 잠시 포천천에 쉬어가는 철새

이번에는 포천천에서 발견된 알락오리를 소개합니다.

소흘읍 수중보 부근에서 망원경과 필드스코프로 관찰하는 도중 화려하지는 않지만 수수한 외모를 하고 있는 알락오리 4마리를 발견한 우리일행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관찰된 알락오리 4마리는 암컷1마리와 수컷 3마리인데, 이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도 다른종(흰뺨검둥오리, 쇠오리 등)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따로 놀고 있던

데, 이것이 바로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해야겠지요.

알락이라는 말의 의미는 겹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알락오리라는 말은 멀리서 보면 전체적으로 검게 보여서 붙은 이름입니다.

알락오리의 수컷은 다른 오리류의 수컷에 비해 참으로 수수한 색을 지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눈에 잘 띄고 아름다움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락오리의 암컷은 일반 오리류가 그렇듯 갈색이 주를 이루는 그런 평범한 색입니다.

알락오리는 날 때 보이는 흰색의 둘째 날개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앉아 있을 때는 이것이 흰점으로 보이는데, 이 흰점이 녀석들 더 돋보이게 합니다.

알락오리는 수컷도 매우 수더분한 처짐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오리류 암컷과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탓에 인기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알락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새는 알락오리를 포함해서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알락꼬리취발귀, 알락도요, 알락뜸부기, 알락쇠오리, 알락할미새, 알락해오리기 등이 있습니다.

알락오리들은 강, 하구, 저수지, 호수 등에 살면서 주로 식물성 먹이를 먹지만 가끔 수생곤충이나 작은 조개류 물고기 등도 먹는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낙동강 하구에 100-200마리 정도가 남아와 겨울을 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나라 생태환경이 좋아져서 그런지 여러 지역에서 많은 개체수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6. 03. 10 포천천 소흘하수처리장 부근 촬영

포천천에는 매년 이맘때쯤 되면 남쪽의 월동지에서 월동을 마친 철새들이 북상을 하기 위해 많은 종의 철새들이 포천천을 경유하여 유라시아 대륙까지 북상을 한다고 합니다.

포천천에는 많은 개체수는 아니지만 청머리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비오리, 쇠오리, 넓적부리, 쇠기러기, 청둥오리, 뱀기물떼새, 흰족지, 뱀기물떼새 등 다양한 종이 찾아오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였습니다.

포천천은 지경학적으로 북상하는 철새들이 잠시 내려앉아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그들의 번식지로 돌아가는 중간 경유지로써의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먼길을 떠나는 철새들이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기에 포천천의 수량이 너무 부족하고 게다가 강폭이 좁아 이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며 휴식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곤 합니다.

하천 주변을 찾는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철새들을 배려해 준다면 이들은 우리 포천천을 잊지 않고 내년에도 더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올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포천생태연구회 회장 이상일 017-705-0994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담은...

■건강을 선물하는 알뜰가격 2만원대 부터...

꽃샘 종합선물세트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꽃샘고려홍삼꽃세트
홍삼꿀 1000g



꽃샘특선봉밀1호
집화꿀 2200g



꽃샘기획세트1호
대추꿀차 1200g / 집화꿀 1200g



꽃샘기획세트2호
영지꿀차 1200g / 집화꿀 1200g



GS기획세트
잡화꿀 1200g / 솔잎꿀차 1200g



꽃샘프리미엄꽃세트1호
아카시아 1200g / 집화꿀 1200g



꽃샘토종고기구3호
토종꿀 1200g



꽃샘토종고기구1호
토종꿀 2400g



꽃샘꿀차세트
영지꿀차 1200g / 대추꿀차 1200g



꽃샘5호
꿀대추차, 꿀유자차, 꿀솔잎차 × 1000g



꽃샘8호
영지꿀차 1200g / 홍삼100 70ml × 7포, 대추꿀차 1200g



꽃샘4호
영지꿀차, 솔잎꿀차, 대추꿀차 × 600g